

# 安廓의 〈朝鮮文學史〉에 나타난 大倧敎의 영향

이 미 순

## I. 머리말

우리 근대문학이 서구문학의 이식에서 비롯하였다고 하는 논리는 이제 상당히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문학의 자생성을 입증하려는 다양한 업적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sup>1)</sup> 그런데 우리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세대에서 이미 서구문학의 무비판적 수용을 거부하고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근대문학을 바라보려 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첫 머리에 놓이는 것이 안학(安廓 1886~1946)의 「朝鮮文學史」이다. 안학의 「조선문학사」는 국문학 연구사상 최초로 쓰여진 문학사이다. 안학은 이 저서에서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신문학을 서구문학의 이식이라 보지 않고 자각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안학의 「조선문학사」는 사상사 위주로 문학사를 기술한 나머지 문학을 논한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문학을 그 당대 문화담당층과 결부시켜 이해하지 못한 결과 우리 근대문학의 자생성을 역동적으로 기술하지 못한 결함을 가진다. 또한 객관적 이지 않은 사실을 기술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문학 연구의 초기세대가 가질 수 있는 결함이라 하겠다. 안학은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을 상호이질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 이 양자를 각각 중국문학과 서구문학의 영향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1)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는 그 대표적인 업적에 속한다.

로 파악하는 관점과는 입장을 달리한다. 그는 고전문학과 신문학을 민족문학의 고유성에 주목하여 통일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당시에 이러한 시각을 확보한 그 자체만으로도 안학의 「조선문학사」가 지니는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안학의 「조선문학사」에 대한 연구는 그의 국학 전체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소략하나마 어느 정도 이루어져왔다. 김동욱 교수와 김용직 교수는 「조선문학사」의 선구적 의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체계가 전혀 없다고 하였고<sup>2)</sup>, 박성의 교수 역시 그 내용이 문학과 연관이 없고 엉성하고 체계가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sup>3)</sup> 이에 반해 정병욱 교수는 독창적인 학설의 제창을 시도한 점을 들어 국문학 연구사에서 '최초의 이정표가 되는 업적'이라 하였다.<sup>4)</sup> 이들의 단평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나 「조선문학사」의 독특한 논리에는 모두가 주목하였다. 「조선문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서준섭 교수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는 국문학사의 체계와 이념, 연구사적 의의 등을 고찰하고 안학이 뚜렷한 문학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5)</sup> 안학의 문학사관과 大倧敎와의 관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원식 교수의 「安自山의 國學」(1981)에서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안학의 저작 대부분을 소개하고 안학의 생애를 간략하게 살피고 「조선문학사」의 사관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그런데 최원식 교수는 大倧敎的 史觀을 丹齋의 '我와 非我의 투쟁'과 동일선상에 두고 안학의 「조선문학사」가 대종교와 일정한 거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다.<sup>6)</sup> 그러나 丹齋의 '我와 非我의 투쟁'은 진화론적 역사관<sup>7)</sup>에 기초한 것으로 대종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최근 안학의 국학을 다룬 연구<sup>8)</sup>는 안학의 국학 전반을 체계적으

2) 金東旭, 改訂 國文學史, 民中서판, 1974, p. 240.

金容稷, 韓國近代文學論攷, 서울대 출판부, 1985, p. 12.

3) 朴晟義, 國文學의 分野別 研究史, 民族文化 제10호, 1976, p. 68.

4) 鄭炳昱,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p. 529.

5) 徐俊燮, 安自山의 '朝鮮文學史'에 대하여, 국어교육 35, 1979, p. 24.

6) 崔元植, 安自山의 國學, 民族文學의 論理, 창작과 비평사, 1982, p. 261.

7) 신일철교수는 丹齋의 '我와 非我의 투쟁'이 진화론에 있어서의 생존경쟁의 체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학술좌담(신일철, 천관우, 김윤식), 단재 신채호론, 한국학보 15집, p. 193. 참조.

8) 유준필, 자산 안학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0.

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조선문학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그것이 기초한 사상적 배경을 해명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조동일 교수는 안학의 「조선문학사」가 전통혁신론의 견지에서 정만조의 전통고수론, 이광수의 전통부정론 등의 잘못을 한꺼번에 시정한 의의 있다고 하여 높이 평가한 바 있다.<sup>9)</sup>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할 때, 안학의 「조선문학사」에 대한 연구는 그 상반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특한 사관」에 대해서는 모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독특한 사관」 때문에 「조선문학사」는 궁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안학의 이 「독특한 사관」이 대종교의 영향에서 비롯함을 밝히고 영향의 구체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문학관 형성의 사상적 배경

안학의 문학연구는 그의 國學研究의 한 하위 영역에 속한다. 그는 문학, 어학, 미술, 음악, 역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학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안학의 문학관은 그가 국학연구를 모색하는 과정을 두루 살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안학의 국학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흥한 것이다. 이에 안학의 국학에는 애국계몽운동의 지적 흐름이 상당 부분 수용되거나와 그 큰 줄기는 社會進化論이다. 안학의 국학이 문명 개화론 및 사회진화론을 그 사상적 근거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세히 지적되었다.<sup>10)</sup> 그런데 안학의 초기 국학에는 사회진화론외에 대종교의 영향 역시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본고에서는 고찰할 「조선문학사」는 그 영향이 가장 짙게 드러나고 있다.

大倧敎는 본래 독립협회 혹은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했던 호남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민족주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만주를 수복하여 대조선국을 건설할 목적으로 창설한 종교이다. 그 교리는 고대로부터 전승되어 온 仙敎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유교, 불교를 가미하고 기독교

9)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pp. 187-230. 참조.

10) 이태진, 안학의 생애와 국학세계, 역사와 인간의 대응, 한울, 1984, p. 238. 참조.

와 이슬람교의 영향까지 받아 이를 근대종교로 부흥시킨 것이다.<sup>11)</sup> 대종교는 그 교리 자체에 독특한 역사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어 일제하 民族主義史學의 형성과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910년대의 한국사서술은 대종교도가 주도한 바 있으며 이들의 역사서술은 이후 국내외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에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었다.<sup>12)</sup> 한국 근대민족주의 사학을 주도한 申采浩, 朴殷植 등은 모두 대종교의 영향을 길게 받았다.<sup>13)</sup>

그런데 안화은 신채호, 박은식 등의 한말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中人계급 출신으로 전통적인 한학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는 최초의 관립 소학교인 수하동 소학교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인물로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다.<sup>14)</sup>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이 1905년 이후 교육, 문화운동으로 변모하게 되자 여기에 뛰어들어 이 시기에 안창호, 이승훈 등과 교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5)</sup> 안화의 이러한 전기적 사실에서 우리는 안화이 국학을 연구하게 된 내적 계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안화과 똑같은 입장의 이광수는 안창호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는 철저한 근대화론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안화이 국학을 모색한 이유로 社會進化論의 주체적 수용과 大倧敎의 영향을 들고자 한다. 한말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진화론에 입각하여 현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는 매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사회진화론이 가지는 ‘進步와 競爭’이라는 논리 가운데 ‘進步’를 강조할 경우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는 원인을 내부의 미개로 돌리는 패배주의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서는 제국주의의 침략이 오히려 문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sup>16)</sup> 開化=文明=近代化=西洋化=資本主義化의

11) 한영우, 1910년대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한우근박사 경년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 pp. 627-628. 참조.

12) 이도학, 대종교와 근대 민족주의 사학, 국학연구 1, 1988, p. 60.

13) 이들과 대종교의 관련에 대해서는 한영우, 1910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한국문화 1, 1980. 참조.

14) 안화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이태진, 앞의 글. 참조.

15) 희원식, 앞의 글, p. 251.

16) 김도형, 대한제국 말기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사상, 연세대 박사학위 논문, 1988, p. 12.

논리를 가진 近代化論者<sup>17)</sup>들이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대체로 이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보보다는 경쟁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 입장에서는 당시를 민족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 등으로 표현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이 바로 생존경쟁의 결과에서 빚어진 사실을 지적하였다.<sup>18)</sup> 이 입장에 설 경우에는 국가의 독립유지와 아울러 保種, 즉 민족의 보전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정신에 대해 논하고, 민족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영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 안학은 물론 후자의 입장에 속한다.

今日 人種競爭이라 民族競爭이라 하는 事實은 一面으로 觀하면 政治的 現狀이라 할지나 一層 其 根底를 對究하면 民族性 競爭이라.<sup>19)</sup>

이와 같이 안학은 당시를 민족경쟁의 시대로 파악한다. 그리고 민족관념을 진작시키기 위해 「偉人の 片影」(1914)과 「朝鮮武士英雄傳」(1919)을 써서 위인들의 행적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는 신채호가 국가정신, 민족주의, 문명주의 등으로 교육의 가치를 내걸고 「이태리전국삼결전」, 「성웅이순신」 등 전기문학을 기술한 것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이다.

한편 진보를 내세우고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인 근대화론자들은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야만 미개국가’에 ‘문명’을 전도하려 온 사도로 인식하였다. 즉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부유하고 제일 문명하고 제일 개화가 되어 하느님의 큰 복음을 입고 사는 나라의 출신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들 선교사들은 제국주의 침략을 침략이 아니라 미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으로 당시 지식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했다. 또한 국가 국권의식을 마비시킨 가운데, 지금은 먼 장래에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이념을 주입시켰다. 이것은 물론近代化를 西歐化와 동일시한 입장에서 나온 논리이다. 이에 따르면 근대화, 진보를 위해 기독교의 보급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른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조선을 미신구렁텅이에서

17) 서중석, 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지식산업사, 1989, p. 80.

18) 김도형, 앞의 글, p. 21.

19) 안학, 조선의 문학, 학지광, 6호, 1915, p. 73. 이하 안학의 글은 제목만 밝히기로 한다.

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하며 동시에 서양의 합리성과 과학정신, 그리고 문명의 도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20)</sup> 이러한 논리는 자칫 잘못하면 전통문화 전체를 무시하는 발상으로 전개될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예로 李光洙를 들 수 있다. 이광수는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인식을 찬양하면서 기독교가 암흑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 최대의 은인<sup>21)</sup>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전통을 부정하고 「민족개조론」을 주장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 시기 기독교가 갖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성격<sup>22)</sup>에 비교해 볼 때 그 의의가 부각되는 것은 民族宗教이다. 일제 식민지화 과정에서 민족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었다. 이 시기 발생한 종교는 1860년경 발생한 동학 아래의 민족종교와 그 맥락을 같이하면서 우리민족의 전통을 계승하였다.<sup>23)</sup> 이 가운데 대종교는 천도교와 함께 3.1운동과 독립군운동으로 항일구국운동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2대 종교이다.<sup>24)</sup>

안화은 이 대종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안화이 대종교 단체에서 직접 활동하였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화은 1910년대에 항일비밀결사의 하나였던 국권회복단에 마산 지부장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단체의 성격을 통해 그가 대종교와 관련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고등경찰의 기록을 통해 이 단체의 성격을 살펴보자.

…그리고 경남 마산에 지부를 설치하고 안화을 그 지부장으로 하여 이형재, 김기성을 임원 등으로 각각 부서를 정하고 檀君大皇組를 받들며 신명을 바쳐 국권회복운동에 종사할 것을 서약했다.<sup>25)</sup>

안화이 3.1운동전 참여한 이 국권회복단은 국권회복운동과 檀君奉祀

20) 이필영, 초기 기독교 선교사의 민간신앙 연구, 서양인의 한국문화 이해와 그 영향, 한남대 출판부, 1989, p. 168.

21) 이광수, 耶蘇教의 조선에 준 은혜, 청춘, 1917: 이광수집집 10, 又新社, p. 17.

22) 서중석, 앞의 책, p. 108. 참조.

23) 이강오, 단군신앙의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 1987, p. 67.

24) 윤이홍, 민족종교,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p. 210.

25) 경북경찰부편, 고등경찰요사, 1934, p. 183.

를 목적으로 혁신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sup>26)</sup> 국권회복단은 후일 대한광복회로 이어지는데 대한광복회 역시 檜君意識을主流로 한 自主的 民族主義를 표방하였다. 한말 애국제동운동에는 ‘단군 민족주의’ 또는 ‘단군 내셔널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조가 사상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sup>27)</sup> 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 역시 大倧教의 民族主義의 흐름 속에 있는 단체였던 것이다.<sup>28)</sup> 안화은 이 국권회복단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대종교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초기 국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III. 영향의 구체적 양상

안화이 「조선문학사」를 집필할 당시는<sup>29)</sup> 대종교의 교리가 정리되어 각종 경전이 편찬되고 대종교 교리에 바탕을 둔 史書와 史論이 적지 않게 저술되었다. 경전으로는 「三一神誥」, 「神理大全」, 「神事記」 등이 간행되었고 史書로는 大野勃의 「檀奇古史」, 金教獻(2대교주)의 「神檀實記」, 「神檀民史」 등이 이미 서술되었다.<sup>30)</sup> 따라서 안화이 「조선문학사」에 대종교를 수용하는 것은 이들 저술의 간행과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안화의 문학사 저술에 대종교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고유사상으로 僧思想의 제시

안화은 문학사를 정신사적 또는 사상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는 문학사란 ‘文學의 起源, 變遷, 發達을 秩序의 으로 記載한 것’으로 ‘一國民의 心의 現象의 變遷, 發達을 推究하는 것’<sup>31)</sup>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

26)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3, 1988, pp. 584-4, 참조.

27) 신용하, 신채호의 애국제동운동사상 下, 한국학보 20, p. 111.

28)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 연구 42, 1983, pp. 128-131, 참조.

조동걸 교수는 1910년 전후 혁신유림의 민족주의를 大倧教의 民族主義라 부르고 있다.

29) 안화은 1921년 「我聲」 제 1호와 2호에 「조선문학사」를 연재했다. 그리고 1922년 한일서점에서 「조선문학사」를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30) 한영우, 1910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한국문화 1, 1980. 참조.

31) 조선문학사, p. 2.

이 文學을 국민정신, 민족사상의 반영으로 보기 때문에 안학은 문학의 용성과 쇠퇴 역시 사상의 변천 양상을 통해 고찰한다. 따라서 안학의 문학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상의 변천’이며, 조선문학사란 조선사상의 변천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조선의 사상이냐 하는 점이다. 안학은 그것을 조선의 고유사상이라 보고 上古文學을 기술하면서 고유사상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한다.

안학은 「조선문학사」를 집필하기 이전 조선의 문학에 관한 글을 쓰면서 우리 문학의 기원이 神話에 있다고 하였다. 문학의 기원이 신화에 있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東西를 勿論하고 文學의 起源을 考할진대 宗教 神話로써 基始를 作하여 文學이 有한 後에 此를 書傳하얏’<sup>32)</sup>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고유사상은 이 神話가 바탕하고 있는 종교를 뜻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三神의 道’이다.

上古에도 奏始皇은 五百人을 我邦에 來朝케 하야 三神의 道를 學하았는지라<sup>33)</sup>

我朝鮮은 檀君이 宗教를 施하야 三神의 道로서 國을 建하신 古로 宗教가 發達되매<sup>34)</sup>

이와 같이 안학은 上古에도 三神의 道가 발달하였다는 점과 이 때의 三神의 도는 단군과 관련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단군을 국조로 인식하는 것과 종교의 시조로 인식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안학은 단군을 국조이자 시조로 인식함으로써 대종교적 입장에 근접해 있다.<sup>35)</sup> 나아가 안학은 우리의 고유종교로 언급했던 ‘三神의 道’를 「조선문학사」에서 ‘倧’으로 구체화한다.

上古文學의 起源은 宗教의 神話 卽 倧에서 始하다. 天地萬物의 創造와 人間思想의 支配는 다 이 三神의 契機로써 作하니<sup>36)</sup>

여기서 三神이란 구체적으로 桓因, 桓雄, 檀君을 뜻한다. 그러면 ‘倧’

32) 조선의 문학, p. 64.

33) 조선어의 가치, p. 36.

34) 조선의 문학, p. 65.

35) 대종교에서 단군을 국조이자 인류의 선조이고 종교의 시조로 본다. 대종교 종본사, 대종교 요간, 온누리, 1982, p. 316.

36) 조선문학사, p. 7.

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대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대종교에서는 三神을 一體로서 天祖神으로 본다. 다만 그 권능과 작용에서 造化神, 教化神, 治化神으로 구분될 뿐이다.<sup>37)</sup> 일반적으로 조화주라는 것은 그 신이 초월적 존재라는 것, 또는 그러한 위치에서 만물을 만드는 주체라는 것을 말하고 교화주라는 것은 특히 인간파의 첨총에서 신의 뜻을 가르치는 주체를 말하며 치화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의 現神人으로써 다스리는 존재라는 뜻이다.<sup>38)</sup> 여기서 治化神인 단군에 주목할 때 ‘倧’을 언급할 수 있다. ‘倧’은 神人을 뜻하는데 국조 단군이 하늘에서 사람으로 화하여 (以神化人) 하여 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다고 했으니 비로소 神人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倧’이란 ‘한얼님으로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을 널리 구제하기 위해 내려오신 분’을 뜻한다.<sup>39)</sup> 이렇게 볼 때 안학이 우리 고유사상으로 ‘三神의 道’, ‘倧思想’ 등을 제시한 것은 대종교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하겠다.

이어 안학은 이 ‘倧’에 관한 이야기 즉 ‘倧話を 書한 것’으로 「三一神誥」를 소개한다.

此倧話を 書한 것은 三一神誥 一冊이니 此書는 古代에 文字가 無함으로 口口相傳하다가 箕子時人王授競이 漢字로 寫하야 傳하다가 近來 大倧敎本部에서 印行한 것이라.<sup>40)</sup>

이와 같이 안학은 「三一神誥」가 고대에 구전되다가 이후 한자로 기록되어 전하여졌고 최근 대종교 본부에 의해 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그는 이 책에 대해 종교적 태도마저 보인다. 즉 「삼일신고」를 읽든지 듣든지 하면 비상한 감명을 받는 동시에 ‘帝王가든 高位에 上한 줄로 思’<sup>41)</sup>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학의 「삼일신고」에 대한 이해는 대종교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한다. 「三一神誥」는 대종교가 重光하는데 제일

37) 서울대 종교학과 종교문화연구실 편, 전환기의 한국종교, 집문당, 1986, p. 121, 참조.

38) 이은봉, 단군신화의 종교적 의미, 정신문화 연구, 1987, p. 7.

39) 서울대 종교학과 종교문화연구실 편, 앞의 책, p. 115.

40) 조선문학사, p. 7.

41) 앞의 책, p. 8.

기본이 되었던 聖典이다.<sup>42)</sup> 대종교에서는 「三一神話」가 전수된 유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此書는 本來 序文과 跋文이 없으니 어느 代 누구의 所作인지 비록 알 수가 없으나 文字는 簡古하고 神事가 畢備이다. 重光前 四年(1905) 乙巳冬에 弘巖神兄이 頭巖翁에게 親受하시고...<sup>43)</sup>

이와 같이 「三一神話」는 나철(道號는 弘巖)이 한 노인으로부터 전해 받았다고 전해진다. 대종교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인 「삼일신고」가 神誌에 의해 돌에 그려 전해지다가 후에 奇子가 一士山사람 夫餘의 법학자 王受競을 맞아 박달나무를 다듬어 殷나라 글로써 「신고」를 써서 이후 이것이 전해졌다고 본다.<sup>44)</sup> 이러한 대종교에서의 주장은 앞서 살펴본 「삼일신고」에 대한 안학의 견해와 그대로 일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종교에서도 「삼일신고」의 신령스러움과 오묘함은 그 경전을 읽음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점 또한 안학의 「삼일신고」에 대한 이해와 일치하고 있다.<sup>45)</sup>

안학은 문학의 기원이 宗教的 神話 즉 祟에 있다고 한 데 이어 歌謡가 祭天으로부터 연원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를 시가가 구비로 전승되다가 후세에 한문으로 번역되었으나 서적이 모두 유실되어 보존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後世에 漢文으로 釋翻한 書籍이 甚多하야 神誌秘詞 古朝鮮秘詞 大辯說 朝代記 博學記 誌公記 表訓天詞 三聖密記 道證記 東天錄 潘天錄 海東古記 三韓古記 等이 엿다하나 此書가 다 兵에 遺失하니 痛哉惜哉로다.<sup>46)</sup>

그런데 안학이 상고시대 가요가 한문으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한 이들 책은 그 대부분이 대종교 史書인 「神壇實記」의 「經史災厄」편에서도 ‘因爲兵燹’으로 유실되었다고 하는 것들이다.<sup>47)</sup> 그리고 「神壇實記」에서 언

42) 이정신, 단군신앙에 관한 경전연구, 정신문화 연구, 32호, 1987, p. 39.

43) 大倧教 祟經合部 : 神事記 跋辭,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기린총서, 1989, p. 144. 재인용.

44) 대종교 총본사, 앞의 책, p. 20.

45) 앞의 책, p. 16.

46) 조선문학사, p. 10.

47) 金教獻, 神壇實記, 東洋書院, 1914, p. 51.

급하지 않은 「神誌秘詞」는 「神擅民史」에서 언급되고 있다.<sup>48)</sup> 신단실기와 신단민사는 물론 대종교 제 2대 교주인 金敎獻이 집필한 책이다. 신단 실기는 대종교의 연원을 역사적으로 밝힌 것이고 신단민사는 通史로서 在滿中學生 및 士官徒의 국사교재로도 사용된 책이다.<sup>49)</sup> 이렇게 볼 때 안학이 상고시대 가요가 보존되어 오지 못한 이유로 들고 있는 서적의 유실 역시 대종교 사서에 근거한 내용이라 하겠다.

또한 안학은 대종교에서 발견한 神歌를 상고시대 가요의 전형으로 소개한다. 이어 그는 후세의 俗曲은 다 이 ‘神歌의 系統을 引한 것’으로 ‘後世文學의 萌芽는 實相此時代神歌에서 出’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아아아 나리한비금가미고이 비달나라나리다모 골잘너나도가오소

어아아아 차마무가한라다시 거마무니설메다리 나리골잘다모한라두리온차마무  
구설하니마두온다

어아아아 나리골잘다모한라하니 무리설메마부리야 다미온마차마무나하니 유  
모거마무나

어아아아 나리골잘다모한라고비온바무 비달나라달이하소 골잘너나가미고이  
나리한비금나리한비금<sup>50)</sup>

안학은 「조선문학사」에서 위에 인용한 原本神歌와 이외 이것을 번역한 解明神歌를 모두 소개하고 있다. 대종교에 따르면 神歌는 고구려에서 군가로 부르던 일노래이다. 신가는 옛 말가사로 4장이 있는데 白圃宗師<sup>51)</sup>가 이를 현재의 가사로 번역하였다<sup>52)</sup>고 한다. 안학은 이 神歌에 대해 ‘東明聖王이 비록 祭祀가 안이라도 恒常此曲을 唱하고’ ‘廣開土王이 每樣 戰에 臨할 時는 士卒로 하여 곰 唱케하야써 軍氣를 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역시 대종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48) 金敎獻, 高東永역, 神擅民史, 한뿌리, 1989, p. 50.

49) 박영석,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사학논총 21·22합집, 1977, pp. 375-377.

50) 조선문학사, p. 10.

51) 白圃宗教는 서일이다. 그는 1912년 대종교에 입교한 이후 동도분사의 施敎師가 되어 포교에 열중하는 한편 會三經, 진리도설, 三一神話 강의 등 경전 및 교리의 해설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1919년에는 북로군정서를 설립하고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만열, 종교교육투쟁, 민족문화 총서 6, 1981, pp. 162-3. 참조.

52) 대종교 총본사, 대종교 요감, 온누리, 1982, p. 432.

이제 까지 우리는 안화이 우리문학의 근원으로 상고문학을 기술함에 있어 대종교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특히 안화이 고유사상으로 대종교의 ‘宗思想’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조선의 문학사가 고유사상의 변천, 발달사라고 한 그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 2. 문학사관에 있어서의 영향

앞서 살펴 보았듯이 안화은 문학사를 ‘一國民의 心的 現象의 變遷, 發達을 推究하는 것’<sup>53)</sup>이라 하고 우리 문학의 기원을 宗思想에서 찾았다. 따라서 조선의 문학사는 宗思想의 변천, 발달을 추구하는 것을 그 근본으로 삼게 된다. 그런데 이 때 변화의 원리는 ‘진보’이다. 이 점에서 그의 문학사관은 사회진화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고유사상과 외래사상과의 관계를 ‘協和’의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사회 진화론과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

此思想의 變遷은 即 南方佛教의 思想과 西方漢文의 中華思想을 輸入하여 古代固有한 宗的思想을 協和한 바 一新思想을 作한 것이다.<sup>54)</sup>

이와 같이 안화은 中古(신라)의 문학을 설명하면서 이 시대에는 고유사상이 외래사상과 協和하여 새롭게 발전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중고문학의 시대를 ‘창조시대’라 하여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문학이 외래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즉 이 시대에 朝鮮固有한 精神이 중원의 제도문화와 유교사상을 수입하게 된 것은 ‘固有한 文化와 精神을 發達하야 社會와 人生을 積極的으로 教化케 함에서 出한 것’이지 ‘政策上이나 崇屈的思想’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55)</sup>

원래 사회진화론(social dawinism)은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대입시켜 만든 이론으로서 생존경쟁, 적자생존의 원리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삼았다.<sup>56)</sup> 따라서 이 사회진화론으로 사회를 설명할 경우

53) 조선문학사, p.7.

54) 앞의 책, pp. 13-14.

55) 앞의 책, p. 41.

56) 루이스 코저, 신용하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1978, p. 57.

에는 일방적인 승리나 패배, 생존과 사멸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학은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을 대립관계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조화내지 협화로 인식하였다. 이때문에 그의 문학사관은 ‘진화 발전의 개념을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함으로써 독특한 역사관을 가지게 되었으며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sup>57)</sup>고 평가되고 있다. 안학의 문학사관이 변증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사회진화론의 역사관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안학이 진화론적 사관에 기초하면서도 독특한 문학사관 내지 민족주의적 문학사관<sup>58)</sup>에 이르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이를 대종교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안학은 고유사상이 외래사상과 이상적으로 協和한 中古의 文學을 매우 高評하였다. 이 종교의 문학은 ‘창조시대’의 산물로 ‘후세의 문학은 다 此시대에서 本’<sup>59)</sup>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안학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최고운의 난량비서문이다. 그는 崔孤雲의 麟郎碑序文에 의거하여<sup>60)</sup> 우리 고유사상인 종사상이 종교적 의식의 발달로 인해 외래사상과 협화하였다고 한 것이다.

속에 崔氏의 云한 바 周柱史之宗이라 함은 誤稱하야 仙道라 함인가 疑하노니 이는 東事類考에 正誤한 것을 보면 可知니 曰我東倧敎誤指爲仙敎然實檀君說敎也라 하니라.<sup>61)</sup>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안학이 우리 고유사상이란 ‘倧敎’ 즉 단군이 펼친 종교라는 것을 거듭 밝히는 부분이다. 이것은 대종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고운의 난량비서문은 대종교에서도 「대종교의 종지가 세 종교를 포함했다」는 것을 주장할 때 그 예증으로 삼고 있는 글이다.<sup>62)</sup> 대종교에서는 대종교의 근원인 神敎를 모든 종교의 뿌리로 보고 유교, 불교, 도교 역시 ‘神敎의 體用의 玄妙’가 표현된 것이라 한다.

57) 유준필, 앞의 글, p. 47.

58) 서준섭, 앞의 글, p. 10.

59) 조선문학사, p. 41.

60) 「國有玄妙之道實乃包含三敎接化群生且如入則孝於親出則忠於君魯司寇之旨也處無爲之事行不爲之教周柱史之宗也諸惡莫作諸善奉行竺乾太子之化也」 조선문학사, p. 14.

61) 앞의 책, p. 14.

62) 대종교 한글글 편수위원회, 대종교 한글글, 대종교 총본사, 1990, p. 107.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대종교에서는 최고운의 난랑비서문에 쓰여진 ‘玄妙之道’를 들고 있다.<sup>63)</sup> 대종교의 이러한 주장은 현재 학계의 그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현재 학계에서도 한국정신의 원형은 최고운의 난랑비서문에 나타난다고<sup>64)</sup> 본다. 그리고 그 사상은 유, 불, 선 그 이전의 고유정신으로 ‘삼교의 성격을 포함했고 또 삼교 이외의 독특한 한 개의 성격을 가진 것’<sup>65)</sup>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 고유사상을 ‘神教’ 내지 ‘三神大道’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風流道인 것이다. 이에 반해 안화는 대종교의 입장과 같이 고유사상을 ‘倧’이라 하였다. 그리고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을 부정을 통한 종합이라는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최고운의 난랑비서문과 같이 하나로 귀일시키는 논리에 의해 즉 ‘協和’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요컨대 모든 것을 포괄하고 협동하고, 조화시켜서 본래의 뿌리인 하나(一)로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는 원리<sup>66)</sup>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안화의 사관은 我와 非我의 투쟁과 모순, 상극의 발전적 지향에서 역사를 파악하려는 신채호의 변증법적 발전적 사관과는 뚜렷이 구별된다.<sup>67)</sup>

우리는 지금까지 안화가 고유사상과 외래사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중요하게 사용한 개념인 ‘協和’가 대종교와 관련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안화는 고유사상과 외래사상과의 이상적인 관계를 ‘ 협화’로 보고 그에 기준해서 이후의 문학을 비판한다. 그는 특히 조선시대의 문학에 대해 비판적인데 여기에 고유사상과 외래사상과의 관계가 문제시됨은 물론이다.

…文學上으로 觀察하면 獨立思想의 缺乏이 來하고 運數의 迷信的 傾向을 生한지라. 故로 近世一代를 通하야는 理想的生活도 없고 精神的 產物도 업다하야도 過言이 안이라 그 獨立思想의 缺乏은 文學에 大影響을 及하야 異學을 排斥하고 親說을 抹殺하여 思想力を 麻痺한지라.<sup>68)</sup>

63) 대종교 총본사, 임오십현 순교실록, p. 83.

64) 김형효, 고대신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철학적 사유,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上, 동명사, 1990, pp. 10-11. 참조.

65) 김범부, 한국사상, 고구려문화사, 1960, p. 109.

66) 서울대 종교학과 종교문화연구실, 앞의 책, p. 130.

67) 이단열, 한국근대 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89, p. 91.

68) 조선문학사, p. 77.

이와 같이 안학은 조선시대의 문학이 유교의 형식주의로 인해 독립사상이 결핍한 결과 문학의 침체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그는 「조선문학사」를 집필하기 이전에도 누누히 유교사상이 조선에 끼친 폐해를 지적해 왔다.<sup>69)</sup>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중고시대의 문학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외래 사상인 유교나 불교에 대해 배타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반해 여기서 유교를 비판하는 것은 조선시대 유교의 배타성이 사상과 문학 전반에 작용하여 우리의 고유성을 결핍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학을 설명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안학은 근대문학의 방향 역시 조선의 고유성에 근거한 외래사상의 협화에 두고 있다.

此와 如히 全朝鮮人の 精神은 八十派로 分裂되다 青年會도 片片散散하야…  
精神은 갈스름 自覺的 統一을 得치 못하더라… 自覺이 업스면 外界에 引惑함은  
定한 理致라<sup>70)</sup>

안학은 갑오경장 이후 유입된 여러 사조에 대하여 전조선인의 정신이 분열되었음을 지적하고 ‘자각적 통일’을 이루자고 한다. 즉 ‘智識은 缺裂하고 思想은 分散해야 統一的情調가 無함에 至<sup>71)</sup> 한 현실을 비판하고 민족내부의 통일을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안학은 조선시대 유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소설과 가요 등에는 ‘一條生命이 維持해야 本來의 정신을 保全’하여 조선 고유의 정신이 ‘女子界와 下屬階級의 兩力を 籍해야 保來<sup>72)</sup>’되어 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면면히 이어져 온 고유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서구문화를 ‘협화’ 하는 것이 안학이 주장하는 신문학의 발전 방향이다.

文學에 有意한 者는 반드시 此에 眼을 舉하야 新文學을 建設할진대 東西兩洋  
의 思想을 調和하야 我의 特質을 發揮하야 新時代 朝鮮文學을 起할지 라<sup>73)</sup>

69) 그는 공자의 유교사상이 조선에 끼친 폐해를 사대주의, 당쟁, 복고주의, 개인주의, 문약의 풍, 운수주의 등으로 들고 있다. 조선의 문학, pp. 71-2. 참조.

70) 앞의 책, p. 134.

71) 앞의 책, p. 131.

72) 앞의 책, p. 114.

73) 조선의 문학, p. 73.

이와 같이 안학은 당시 우리 문학인에게 필요한 것은 ‘我의 특질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아의 특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조선의 고유성을 다름 아니다. 요컨대 안학은 조선의 고유성을 토대로 서구사상 즉 외래 사상을 조화하는 것을 ‘자각적 통일’이라고 하였던 바 그것이 신문학의 발전방향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안학의 문학사 서술에 대종교의 영향이 상당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안학의 문학사는 대종교의 영향하에 놓임으로써 과학적, 실증적, 객관적이어야 하는 학문의 근대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sup>74)</sup> 그러나 대종교가 안학의 문학사에 미친 영향의 의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중세적 존화주의를<sup>75)</sup> 극복하고 식민사관에 대항한 근대민족주의적 사관을 가능케 한 데 있다.

#### IV. 맷 음 말

본고에서는 국문학 연구사상 최초로 쓰여진 문학사인 안학의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안학의 초기 국학에 미친 대종교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안학의 국학은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발흥한 것이다. 이에 안학은 국학연구를 모색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의 지적 흐름인 사회진화론과 대종교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종교는 본래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던 진보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종교로 일제 하 민족주의 사학의 형성과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안학의 초기 국학에도 대종교의 영향은 지대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조선문학사」에서이다.

안학은 문학사를 정신사적 사상사적 관점에서 파악한다. 안학은 조선 문학사를 조선사상의 변천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며 조선의 고유사상으

74) 안학은 1930년대에 이르러 새롭게 문학사를 서술하려는 의욕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그는 대종교의 영향을 부정한다.

75) 「삼국사기」에서 조선후기까지 주류를 형성한 사관은 유교적 사관이다. 그런데 이 유교적 사관은 대외 관계서술에 있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뺏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만열, 앞의 책, p.59. 참조.

로 儒思想을 제시한다. 안학이 고유사상으로 儒思想을 제시한 것은 물론 대종교의 영향에서 비롯한다. 이외에도 안학은 上古시대 문학을 설명하면서 대종교의 기본 경전인 「三一神誥」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하고 대종교에서 발견한 神歌를 언급하기도 한다. 「조선문학사」에서의 대종교의 영향은 문학사관에서도 나타난다. 안학은 문학사를 진보, 발전의 원리로 이해함으로써 사회진화론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그는 고유사상과 외래 사상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協和'의 개념으로 파악함으로써 사회진화론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 '協和'의 개념 역시 대종교의 영향에서 비롯한 것이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安廟의 「朝鮮文學史」를 대종교와의 관련하에서 고찰하는데 치중한 결과, 「조선문학사」의 한 특성을 해명하는데 그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안학의 文學史觀에 대해서도 대종교와 사회진화론의 관련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지 못했다. 그러나 본고를 통하여 「조선문학사」로 중심으로 한 안학의 초기 국학의 형성에 대종교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밝혀졌으리라 여겨진다. 앞으로는 안학의 국학자와 대종교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국학의 형성에 있어서 대종교의 영향을 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거시적인 틀속에서 파악하는 시도도 아울러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경북경찰부 편, 고등경찰요사, 1934.
- 金敎獻, 高東永 역, 神擅民史, 한뿌리, 1989.
- \_\_\_\_\_, 神擅實記, 東洋書院, 1914.
- 김도형, 대한제국말기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사상,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 김동욱, 개정 국문학사, 민중서관, 1974.
- 김범부, 한국사상, 고구려문화사, 1960.
- 대종교총본사, 대종교요감, 온누리, 1982.
- 大倧敎總本司, 壬午十賢殉敎實錄, 1971.
- 대종교한글 편수위원회, 대종교한글글, 대종교총본사, 1990.
- 루이스코저, 신용하·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1979.

- 박영석,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사학논총 21·22합집, 1977.
- 박성의, 국문학의 분야별 연구사, 민족문화 제10호, 1976.
- 서준섭, 안자산의 「조선문학사」에 대하여, 국어교육 35, 1979.
-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 서울대종교학과 종교문화연구실 편, 전환기의 한국종교, 집문당, 1986.
- 송호수, 한민족의 뿌리사상, 기린총서, 1989.
- 신용하, 신채호의 애국계동사상 下, 한국학보, 20.
- 安廓, 朝鮮語의 價值, 學之光 4호, 1915.
- \_\_\_\_\_, 朝鮮의 文學, 學之光 6호, 1915.
- \_\_\_\_\_, 朝鮮文學史, 韓一書店, 1922.
- 유준필, 자산 안화의 국학사상과 문학사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0.
- 윤이총, 민족종교, 사회변동과 한국의 종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이강오, 단군신앙의 실태분석, 정신문화연구, 1987.
- 李光洗, 耶蘇教의 朝鮮에 준 은혜, 靑春, 1917.
- 이도학, 대종교와 근대민족주의사학, 국학연구 1, 1988.
- 이만열, 종교교육투정, 민족문화총서 6, 1981.
- \_\_\_\_\_, 한국근대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89.
- 이은봉, 단군신화의 종교적 의미, 정신문화연구, 1987.
- 이정신, 단군신앙에 관한 경전연구, 정신문화연구, 1987.
- 이필영, 초기 기독교선교사의 민간신앙연구, 서양인의 한글문화이해와 그 영향, 한남대출판부, 1989.
- 이태진, 안화의 생애와 국학세계, 역사와 인간의 대옹, 한울, 1984.
- 정병우,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0.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1988.
-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사연구 42, 1983.
-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1.
- 최원식, 민족문화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82.
- 학술과 담(신인철, 천관우, 김윤식), 단재 신채호론, 한국학보 15집.
- 한국철학회 편, 한국철학사 上, 동명사, 1990.
- 한영우, 1910년대의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한국문화 1, 1980.
- \_\_\_\_\_, 1910년대의 신채호의 역사인식, 한우근박사 경년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1.